

제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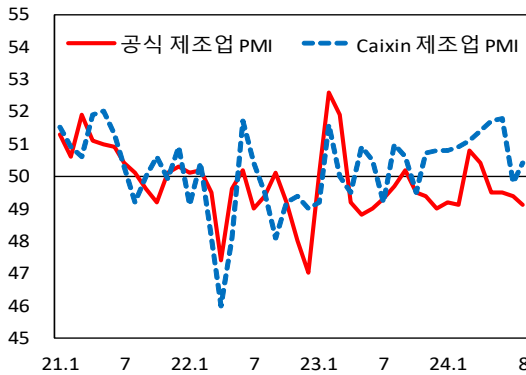
중국 8월 제조업 PMI 부진 지속

1. 8월 PMI의 주요 특징

□ (제조업 PMI) 8월 제조업 PMI는 49.1로 전월(49.4)보다 0.3p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기준치(50)를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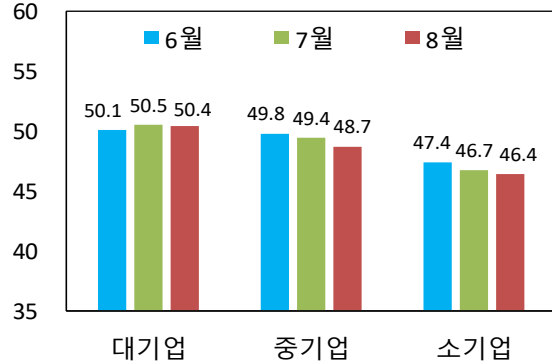
○ 규모별로는 대기업(7월 50.5 → 8월 50.4), 중기업(49.4 → 48.7)과 소기업(46.7 → 46.4)이 모두 전월보다 하락

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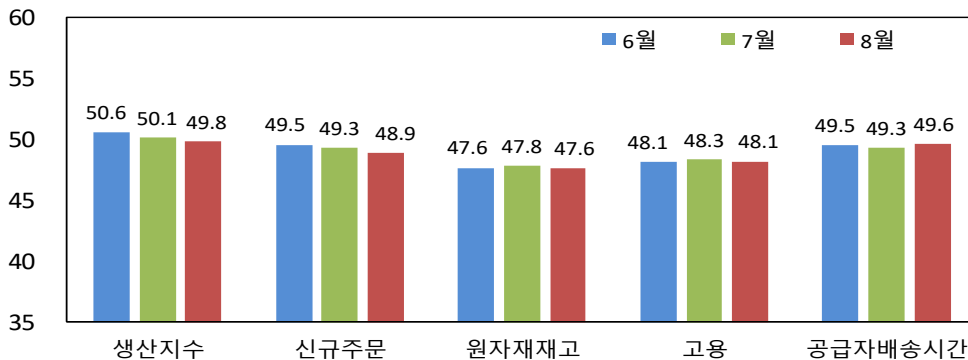
기업규모별 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○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생산(7월 50.1 → 8월 49.8)이 전월보다 0.3p 하락하며 6개월만에 기준치(50)를 하회하였고, 원자재재고(47.8 → 47.6), 고용(48.3 → 48.1), 신규주문(49.3 → 48.9)이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며, 공급자배송시간(49.3 → 49.6)은 상승

구성항목별 제조업 PM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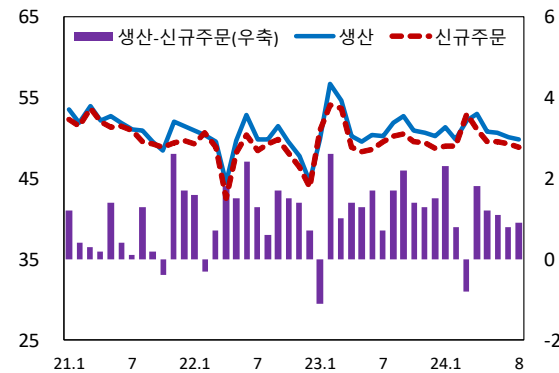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—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**생산지수**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**신규주문지수** 간 **차이**는 **소폭 확대***

* 생산지수 - 신규주문지수: (24.4월) 1.8 → (5월) 1.2 → (6월) 1.1 → (7월) 0.8 → **(8월) 0.9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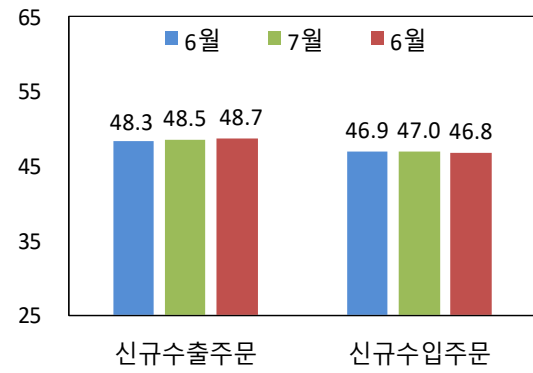
— **신규수출주문**(7월 48.5 → 8월 48.7)은 전월보다 **소폭 상승**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였고, **수입**(47.0 → 46.8)은 전월보다 **소폭 하락**

생산 및 신규주문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수출입 관련 PM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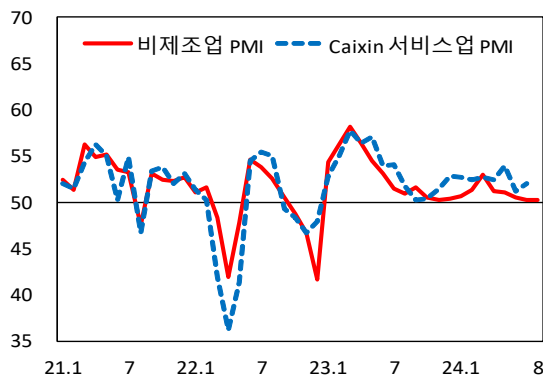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비제조업 PMI) 8월 비제조업 PMI는 50.3로 전월(50.2)보다 소폭 상승**

○ **서비스업**(7월 50.0 → 8월 50.2)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, 금융·보험 등이 부진하였으나 철도·항공운송, 정보·통신, 문화·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월에 비해 **소폭 상승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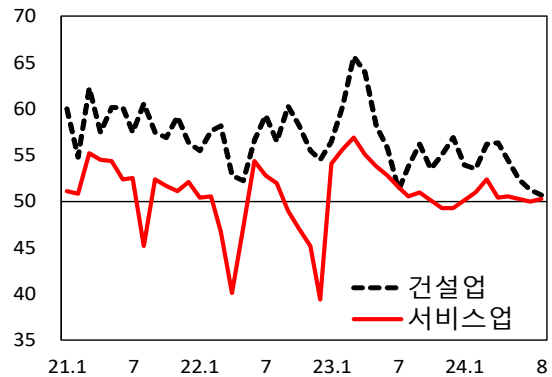
○ **건설업**(51.2 → 50.6)은 부동산경기 부진이 여전한 데다 고온·우천 등 기상여건 악화의 영향이 더해지며 전월에 비해 **둔화**

비제조업 PMI¹⁾



주: 24.8월 Caixin 서비스업 PMI는 미발표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종합 PMI) 8월 종합 PMI(50.1)는 비제조업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더 크게 내리면서 전월(50.2)보다 0.1p 낮아짐**

2. 시장평가 및 전망

- **중국경제**는 8월 비제조업 PMI가 소폭 상승하였으나, 제조업 PMI가 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**경기둔화세가 지속**
 - **비제조업 PMI**는 여름철 여행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서비스업 PMI가 오르며 **소폭 상승**하였으나, **건설업 PMI**는 부동산 투자 부진*, 기상여건 악화(고온·우천)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**을 보이는 등 **하락세가 지속**(方正証券)
 - * 2024.1~7월 누적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10.2% 감소
 - ** 2024.8월 건설업 PMI(50.6)는 2020.2월(26.6) 이후 가장 낮은 수준
 - **제조업 PMI**는 유효수요 부진 지속과 함께 최근의 기상여건 악화(고온·우천)에 따른 생산활동 제약, 에너지·원자재 관련 산업 부진* 등으로 **하락**(中金公司, 东吴証券 등)
 - * 비금속 광물 제품(전월대비 -3.7p),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(-2.1p), 철강 가공(-2.1p) 등
 - 또한 **내수부진**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 출고 가격에 전이되면서 **제조업 제품의 시장가격 하락**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(德邦証券)
-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유효수요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, 정부의 **내수 진작책 시행속도** 등에 따라 **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좌우될 전망**
 - 현지 전문가들은 기상악화 등으로 지연된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등 내수 진작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와 함께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정책을 기대(中財研究, 开源証券 등)
 - 관공성 인민은행 총재는 역주기조절*(逆周期調節)을 강화하고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을 강조하였음(8.26일, 양회<兩會> 대표위원, 전문가 및 금융기업과의 간담회)
 - *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정부가 금리 인하 등으로 속도감 있게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